

과업 6: 최소 복음화 종족

협업 구성을 위한 도입 질문

교회, 초교파 단체, 일터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다가가서 제자화 하기 위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설명

대위임령 노력의 대부분은 현재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 및 소외된 인구는 종종 전통적인 교회 구조와 단절되어 있지만, 정부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상업 기관들과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는 것은 교회와 초교파 선교단체와 일터의 협업 선교를 위한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

전 세계에서 최소로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대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탐구한다:

협업 질문

- 선교/교회 조직/사역자들은 최소 전도 종족에게 어떻게 복음의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는가?
-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어떤 대위임령 노력이 필요한가?
-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더 나은 협업과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가?

하위 주제

- 최소 전도 종족의 필요를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전달
- 최소 전도 종족을 위한 조직적 협업 기회
- 미전도 종족 집단
- 소외된 인구
- 힌두교
- 불교
- 유대교

2024 서울-인천 대회 준비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읽어보라.

- 로잔 신학위원회가 작성한 서론
- 1부,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대위임령 현황
- 2부, '아시아의 부상', '아프리카의 부상', '급진적 정치'에 관한 논문과 '자유를 위한 권리', '종교적 박해',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회'에 관한 논문('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주제의 다른 논문 참조)
- 3부, 주로 당신이 섬기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자료